인터뷰

공명수 대진대 제9대 교수협의회장

"不信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정신으로 발전"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는 10월 25일 오후4시 사회대 5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영문학과 공명수(사진·46)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공 교수는 단일후보로 나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전원찬성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공명수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의장은 주요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교협의 혁신적 운영방법으로서 상향식 임원선출 방식을 도입하겠다. 새로운 상향식 제도는 회원의 소속학과가 직접 1인의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회장과 총무를 비롯하여 정(부)위원장과 자문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학 평의회 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둘째,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 평의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민주적인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학평의회 규정을 마련하겠다.

셋째, 10대 해결과제를 마련해 행정당국에 이를 제안하고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시행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전체 교수회의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10대 해결과제로는 정년보장심사규정개선, 입학처 신설과 같은 행정조직 구조조정 건의, 학과중심의 학생지도 체제 도입 건의, 안식년 연구비 도입, 안식년 1년 혹은 6개월 선택제 도입, 스타교수 유치 및 지원체제 도입 건의, 우수교수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제도 도입, 대학 특성화 다변화, 총장 직속 고충처리위원회 신설안 건의, 계약제 및 연봉제를 위한 교원신분 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교직원 처우 개선 및 교직원 복지증진 대책 등이다.

특히 공 신임 회장은 "교직원 여러분! 이제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정신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도록 합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명수 신임 회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학장, 대진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특성화 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주요저서로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이해, 미국소설의 안과 밖, 편집증적 환상실재 등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거노인에게 땔감용 화목 지원

육군 5군단, 독거노인 대상 화목 분배

육군 5군단 장병들이 이달 6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땔감용 화목을 포천시 이동면 장암 5리 노인회관 앞에 적재하고 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고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초겨울의 날씨에 육군 제 5군단은 11월6일 화목난로로 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부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용 화목을 지원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부대는 영내 환경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정리된 나뭇가지를 화목재료로 수거해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백연사와 장암 5리 및 연곡 1리 회관, 오가리 농장 등 인근지역 독거노인 들이 살고있는 주거지 및 노인복지회관 5개소에 15톤 트럭 18대분의 화목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특히, 이번 화목지원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한파에 어려운 생활고로 자칫 마음까지 추워질 수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곧 다가올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으로 주고받는 즐거움을 함께 한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부대는 향후에도 군단사령부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노인 중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원대한 사명 되새긴 大眞武祭

白頭峻嶺을 호령할 대진대학교 학군단

대진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은 10월26일 오후5시 학군단 옆 야외 광장에서 제1회 대진무제를 개최했다.

대진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단장 윤관원)은 10월26일 오후5시 학군단 옆 야외 광장에서 제1회 대진무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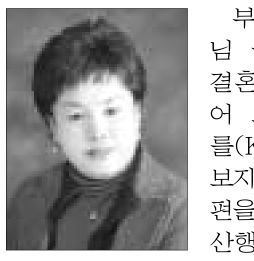
이날 축제는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장기자랑/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으며 이천수 대진대 총장과 박동기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2부 장기자랑 시간에는 초청공연, 커플노래, 태권도시범, 바디빌딩, 댄스, 군가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진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박동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본연의 임무인 학문탐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차 대한민국 육군의 초급 장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각종 군사학과 통솔력을 연마해야 하는 1인2역의 힘든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격려하고 "오늘 대진무제를 통하여 투철한 신념과 열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대한 사명을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연홍이와의 부산나들이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부산 큰형님 둘째아들 결혼식이 있어 고속열차를(KTX) 타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부산행 열차를 예매했다. 하지만 갑자기 출발 하루 전 저녁에 새끼를 낳은 어미젖소를 치료하기 위해 남편은 못 가고 큰딸과 함께 다녀와야만 했다.

"엄마! 일어나 6시야." 연홍이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 의정부역까지는 남편이 태워다 주었다. 5년 전에 제주도를 큰딸과 단둘이서 여행을 하고 이번이 두 번째 여행이다. 열차 안에서 먹을 빵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연홍이 와 함께 서울에서 출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연홍이가 이번 여행으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라며 우린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열차 창밖으로는 울긋불긋 단풍잎과 늦가을 황금들녘의 추수가 한창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덧 우린 부산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우아하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형님들과 아주버니, 시누이, 조카, 손자들과의 만남으로 반가운 나머지 부둥켜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교회 식으로 진행되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신랑과 신부를 위해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 뜻에 순종하라' 고 하셨고 '아름다운 신랑, 좋은 믿음의 신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며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다.

요즘 주변에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본인의 삶에 만족하며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혼하여 좋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가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길 바라며, 혼기가 찬 조카와 손자들이 하루빨리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아를 실현 해 나가길 권유한다.

가산초 축구부 전국대회 우수한 성적 거둬

제1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7vs7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제1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7vs7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

가산초등학교(교장 윤영칠) 축구부가 최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가산초등학교 축구부는 지난 9월6일부터 16일까지 부여군에서 개최된 2007 추계 유소년 축구연맹전에 고학년부(6학년이하)와 저학년부(5학년 이하)로 나누어 출전해 저학년부가 4강까지 올라 3위를 차지했다.

저학년부는 1회전 대전 정림초등학교를 이예찬 군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5:1 대승을 거두었고 2차전 또한 일산오마초와의 경기에서 3:1로 완승을 거두었다.

2승으로 조 1위로 진출한 16강전에서는 울산농소초와 대결, 전반에 1골을 허용한 가산초는 패색이 짙었으나, 후반 14분경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종료 2분전 극적인 역전골을 넣어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전북의 강호 이리동초와 맞붙었지만 이미 기세가 오른 가산초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광일 군의 2골 활약에 힘입어 가산초는 저학년부 4강에 올랐다.

4강에서 만난 전남 여수 미평초와의 경기는 종일 밀고 밀리는 접전이 계속되었으나 1:1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후반 종료 3분전 안타깝게 골을 허용하여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 대회를 통하여 가산초 이건휘 군(5학년)은 페어플레이 상을 수상했고, 전체 3위의 메달을 수여 받았다.

또 이어 개최된 제1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7vs7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해 예선 3경기에서 울산강남초, 부산동해초, 경기무원초를 만나 5:2, 4:1, 3:3의 성적을 내 조1위로 본선 32강에 진출했다.

32강전에서 경기 화산초와 1:0. 16강전에서는 경기고촌초와 3:3으로 비겨 추첨승으로 8강전에 진출해 서울 삼선초와 0:0 무승부로 pk에서 5:4로 승리해 4강에서 진주봉래초를 맞아 2:1로 승리해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대구신암초에게 1:2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5학년 이예찬 선수가 우수선수상, 5학년 정석주 선수가 수비상을 받았고 강윤식 감독과 김태현 코치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연탄난로 늘봄지킴이

강옥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매년마다 10월 말일경이면 우리 늘봄꽃집에는 연탄 난로를 놓는다. 나는 연탄난로를 놓고 연탄불이 피여 있으면 마냥 행복해진다. 먼지나고 불편한 것이 여러가지지만 연탄 난로옆에 앉아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은은하게 따뜻해지면 난로 위에는 항상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며 때로는 고구마며 감자도 구워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난로가에 둘러앉아 재미난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도 몸도 넉넉해진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족함없이 늘 우리 곁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불' 이것이야 말로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는 생활이다.

그 옛날 70년대 우리는 연탄불도 마음놓고 못 피웠었다.

그 시절 연탄불을 꼬옥 맞고 방안으로 들어오면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불 속이 나만의 낙원이 된다.

가족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불 밖으로 세어 올라오는 코김은 하나의 놀이가 되어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겨울을 지낸다.

연탄 아낀다고 불구멍을 너무 막아서 연탄불이 꺼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온 식구들이 꼬옥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

21세기 고유가 시대에 살면서 집집마다 자가용이 흘러 넘치고 먹거리, 입을 거리가 넘쳐도 사람들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못 채워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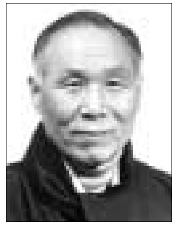
난 오늘도 꽃집에 피워놓은 연탄냄새가 가끔은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난 겨울만 되면 행복해진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이념(理念)과 인격(人格) 35

이념의 뿌리는 생각, 인격은 수양에서 출발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사람들은 '이념(理念)' 이 어떻고 '인격(人格)' 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이념이란 '생각' 이다. '사상(思想)' 이다. 이념의 뿌리는 생각이다. 생각이 굳어지면 이념이 되는 것이고 이념이 한 시대를 풍미(風靡)하면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풍토(風土)에서 나오는 것이고 환경(環境)에서 나오는 것이다. 풍토와 환경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支配)한다는 말이다. 환경과 풍토가 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섭리(攝理)한다는 말이다.

언뜻 보기에 '이념' 과 '사상' 은 같은 것이라 생각되나 실은 그렇지 않다. 생각이 굳어지면 이념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념이 사상이 되려면 적어도 그 이념이 한 시대를 '풍미' 해야 한다. 어떤 이념이 한 시대를 풍미해야 비로소 '사상' 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말이다. 이즘(ism)으로 불리게 된다는 말이다. 공산주의(communism)나 민주주의(democratism)는 '사상' 으로 부르나 단군 할아버지의 가르침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사상' 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이념(理念)이지 사상(思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념과 사상은 그 지향(指向)하는 바가 다르다. 이념이 교화(teach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상은 통제(control and dominate)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은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이나 사상은 상호배타적(相互排他的)이다. 이념은 공존(共存)할 수 있으나 사상은 공존할 수 없다.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생각을 용납(容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주장만을 고집(固執)하기 때문이다.

사상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사상에 눈이 멀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사상의 늪에서 헤어나야 한다. 사상의 청맹과니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상에 눈이 멀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인다. 사상이 귀를 막으면 어떠한 충언(忠言)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구(警句)도 들어오지 않는다. 사상의 포로(捕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고 사상의 천라지망(天羅地網)에서 탈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념(理念)과 사상은 '생각' 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인격(人格)은 그렇지 않다. 인격은 수양(修養)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과 맘을 갈고 닦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일 뿐이다. 몸과 맘을 닦는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인격은 도야(陶冶)되는 것이고 그 정신은 고매(高邁)해지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신을 단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양을 한다는 것은 '닦는다' 는 것이다. 몸과 맘을 닦는다는 것이다. 몸과 맘을 '새롭게 한다' 는 것이다. 몸과 맘에 때가 끼지 않도록 매일 매일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명(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人格)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다. 성품(性稟)을 말하는 것이고 품격(品格)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품으로 말하고 품격으로 말한다. 성품을 말하는 이유이고 품격을 따지는 이유이다.

인격은 신뢰(信賴)를 낳고 믿음을 준다. 진실성(眞實性)이 있고 일관성(一貫性)이 있고 예측가능(豫測可能)하기 때문이다. 인격은 모든 것을 포용(包容)한다. 편가르지 않는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대한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말하는 이유이고 인격도야(人格陶冶)를 말하는 이유이다. 전통적으로 풍류(風流)와 품격(品格)을 말하는 이유이다.

자유기고

금강산을 다녀와서

송미령
주부명예기자단총무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을 동기 삼아 북한 땅을 밟았다. 설렘 반, 호기심 반을 가슴에 안고 떠난 일행은 남한과 북한의 분리된 입국 절차를 거치면서 처음 출발할 때 품고 있던 떨림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이 갈라진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고성에서 금강산까지는 교통편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지만 휴대폰을 비롯하여 북으로의 반입 불가 물품들을 확인하는 등 입국과정에만 두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인지 멀게만 느껴졌다.

그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금강산 등반을 시작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어도 무표정한 안내원들의 시선이 왠지 입맛을 씁쓸하게 하는 출발이었다.

먼저 아름다운 금강산의 단풍이 눈에 들어오더니, 그것에 취해 있기가 무섭게 옥수같은 계곡 물빛이 우리를 반겼다. 빨강고 노란 단풍과 보석같이 투명한 푸른 계곡은 굳이 제 색을 뽐내려 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있었다. 더불어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을 자랑하는 바위들도.

아~그래 이곳이 바로 금강산이로구나. 벅찬 마음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그 길이 너무도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가 곧 어느 봉우리의 정상에 도달할 것만 같았는데 정해져 있는 일정의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여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곳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눈에 밟히는 길을 타박타박 걸으며 돌아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을 만났다.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었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이라니. 격세지감을 느꼈다. 어렸을 적,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쳐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수학여행이라니....

잠시 머물렀을 뿐인 금강산에서 나는 너무나 여러 모습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십년 후 우리는 또 그렇게 변해 있을까?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 있을까?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평화로움을 평화롭게 느끼며 다시 한번 금강산에 오를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